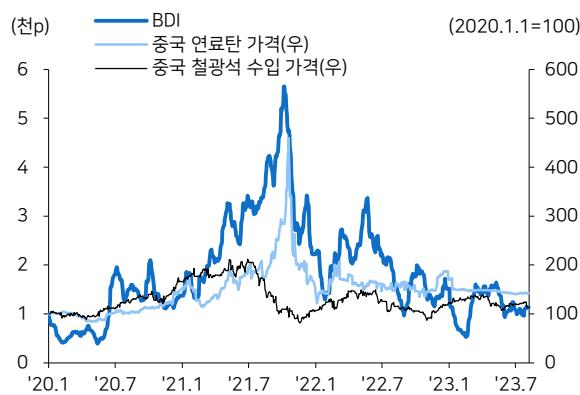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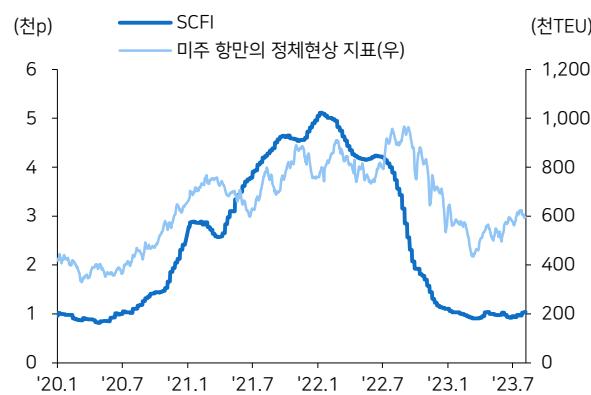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145.0p(+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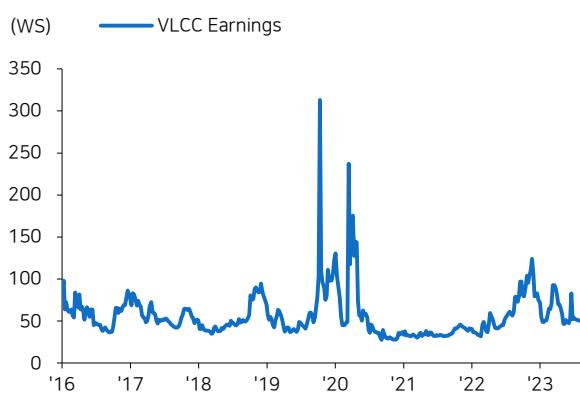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39.3p(+1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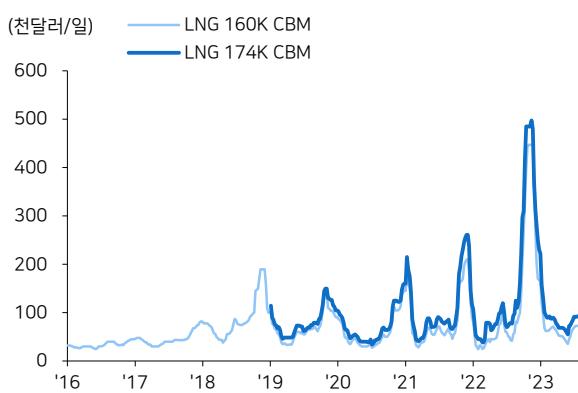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0.3p(-0.3p WoW)



LNG Spot 운임

78.8천달러(+5.0천달러 WoW)
107.5천달러(+13.8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2.6p(+0.2p WoW)
149.5p(-1.7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9.0달러(-3.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 한화, LNG선 3척 수주 경쟁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 및 천연가스회사 Pertamina가 발주할 175,000CBM급 LNG선 최대 3척을 놓고 수주경쟁을 벌일 전망으로 보도됨. Pertamina는 지난 11월 선대 개선 및 다각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억달러를 투자해 LPG선 및 LNG선 시장 진출에 사용할 계획으로 언급됨. (선박뉴스) (<https://shorturl.at/diOUZ>)

"사실상 아시아나 공증분해"…산은, '플랜B' 만지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해 온 산업은행이 합병 절차 무산을 전제로 제3자 매각 등 대안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됨.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아시아나 안정화 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고 언급됨. 산은은 지난 6월까지 기업결합 무산 플랜B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한국경제) (<https://shorturl.at/ikpB7>)

Cheniere, Corpus Christi 확충공사 조기 완공 전망

미국 LNG 생산업체 Cheniere Energy는 10MTPA급 Corpus Christi Stage 3 LNG 확장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도됨. Train 1은 공사가 50% 이상 완료되었고,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어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됨. 이로써 2025년에는 LNG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고, 2026년말에는 7개 트레인 전체가 가동될 예정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https://shorturl.at/pS046>)

July volume at Wilson Sons' Rio Grande box terminal grows 44%

Rio Grande 컨테이너터미널 처리량이 전년대비 44% 증가했다고 보도됨. 수출량은 전년대비 83% 증가했는데, 높은 운항 정시성과 화학제품 및 레진 수출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됨. 글로벌 병목현상이 해소되며 화주들이 낮아진 운임과 서비스 정상화에 따라 물동량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otQ24>)

Price cap breach could boost second-hand tanker market again, says Gibson

유가가 G7 가격상한제 이상을 유지하면 러시아 그림자선대가 조성되며 중고 유조선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도됨. 7월 우랄산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며 탱커 선주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송을 피하게 됐다고 알려짐. 유럽 선박들이 시장을 떠나고, 러시아 원유 생산이 3월 감산 이전으로 돌아가면 선복량 부족이 야기될 전망이라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rOVW9>)

Final investment decision delay for \$2.4 billion Canadian LNG project

24억달러규모 캐나다 Cedar FLNG 프로젝트 FID가 연기됐다고 보도됨. 2022년초 삼성중공업-Black&Veatch가 FEED 계약을 수주했고, 2027년 가동 예정으로 알려짐. 2023년 4분기 중 FID를 내리기로 연기했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s://shorturl.at/bcowJ>)